

# “부산 넘어 전국에 法音 전하는 터전될 것”

## BBS불교부산방송 2월 1일 사옥 건립 선포

BBS불교부산방송(사장 수불)이 사옥 건립을 선포했다. BBS불교부산방송은 2월 1일 부산시청 대강당에서 개국 21주년을 기념해 ‘북항 발전과 BBS불교부산방송 사옥 건립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사장 수불 스님의 인사말과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서병수 부산시장, 이해동 부산시의회 의장, 김석준 교육감의 축사 등이 진행됐다. 특히 선포식에서는 ‘땅 한 평 사기 캠페인’에 동참한 후원자를 직접 무대에 초대해 감사하는 자리도 마련됐다. 대표 후원자로는 범어사 한주 무비 스님, 국가중요무형문화재 112호 성종사 대표 원관식 씨, BBS불교부산방송을 아끼고 사랑하는 재가불자들의 모임 범소리 김주희 회장, 박종호 사무국장, 부산 불교삼보회, 부산여성불자회 왕선자 회장, 민주평화통일 이영숙 부의장 등이 밝혔다.

행사에서는 땅10평 사기 후원금도 전달됐다. 후원금은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백양산 선암사 주지 원범 스님, 장원성주사 주지 원종 스님, 부산불교연합신도회 이윤희 회장, 부산불교연합신도회 박대성 사무총장, 이해동 부산시의회의

지상 40층 랜드마크로 건립  
선센터 및 불교단체도 입주  
땅 10평 사기 후원행사 전개

장, BBS불교부산방송 류진수 초대회장, BBS불교부산방송 운영위원 김백영 변호사, 부산시화물운송사업협회 신한춘 이사장, 은산해운항공 양재생 대표이사 등이 10여 여원을 모았다. 사장 수불 스님은 “지나해 취임식 당시 약속한 신사옥 건립이 첫발을 내딛었



BBS불교부산방송은 2월 1일 사옥 건립 선포식을 개최했다.

다. 신사옥은 부산불교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한편, BBS불교부산방송은 구립 30일 부산 북항 재개발지역 IT영상 전시지구에 사옥건립을 위한 부지 1805평을 계약했다. 토지 계약금 209억원 중 약 10%인 21억원이 계약금으로 지불된 상태다. BBS불교부산방송 신사옥은 지하 5층 지상 40층으로 건립될 예정이며 불교미디어테마파크와 선센터, 불교단체 사무

실 공간 등도 함께 들어선다. 이 자리에는 수불 스님을 비롯해, 범어사 부주지 범산 스님, 삼광사 주지 무원 스님, 부산불교연합회 부회장 원범 스님, 한마음선원 부산지원장 해도 스님과 부산불교연합회 이윤희 회장, 박대성 사무총장, 선산신 BBS불교방송 사장, 류진수 초대사장 등 사부대중 1000여 명이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 “부처님 가피로 福된 설날 되길”

## 부산지역 사찰, 설날 맞이 자비나눔행 활발

부산지역 사찰들이 자비나눔으로 설날을 맞이했다. 부산 천태종 삼광사(주지 무원)는 2월 2일 지관전에서 소외계층을 위한 자비의 쌀을 전달했다. 삼광사가 주최하고 힐링광장이 후원하는 이번 행사에서는 총 1,600kg의 쌀이 독거노인, 장애인, 저소득 아동들에게 전달됐다. <오른쪽 사진>



주지 무원 스님은 “나눔은 부처님의 자비혜사로 세상을 밝히는 행위”라며 “설날을 맞아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을 가지고 육바라미를 실천하겠다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전하길 바란다”고 새해 덕담을 전했다.

또한 통영 보현사(주지 묵원)와 보현사 나누우리 봉사단은 2월 4일 명절을 맞아 나눔을 실천했다. 보현사는 통영 지역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등 소외계층 10곳을 선정해 방문하고 한집 당 쌀 20kg, 라면 3박스, 화장지 1세트와 함께 심시일반 모은 성금도 전달했다. 주지 묵원 스님은 “나눔으로 그들이 외롭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용호종합사회복지관(관장 이춘성)은 설날을 맞아 지역사회 내 소외된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고자 2월 3일 복지관 2층 강당에서 ‘설맞이 사랑나눔 한마당’ 행사를 실시했다. 지역주민의 흥겨운 노래자랑과 풍물공연을 시작으로 설맞이 떡국거리 및 생필품을 전달했다.

이어 설날에는 따뜻한 떡국도 지역민들에게 대접했다. 전달식에는 이종철 남구청장, 서용국 국회의원 등 내빈들과 저소득가정과 독거노인, 장애인세대, 한부모가정 등 총 400세대가 참석했다. 하성미 기자

# 대한불교연화조계종 신년하례법회

사단법인 대한불교연화조계종은 1월 28일 총본산 총무원 영전 정림사 대웅전에서 병신년 신년하례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는 종정 보명 스님과 총무원장 해법 스님, 원로의장 대해 스님, 종회의장 법진 스님과 문화부장 진송 스님 및 회원 중도 사찰 주지스님 20여명이 동참했다.

총무원장 해법 스님은 “나라 살림이 어려워 절때 회연 중도 사찰 스님들이 날마다 밝은 마음으로 열심히 기도하자. 기도를 통해 창의로운 지혜가 생겨 사회발전에도 크게 기여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종정 보명 스님은 “늘 오늘에 감사하고 사랑하면 날마다 좋은 날이니, 깨달음의 도량에서 이웃과 함께 혼신의 노력으로 수행 정진하여 부처님 법을 세상에 마음껏 펼쳐나가자”고 당부했다. **순문철 대구지사장**



# 포교 탐방 “리틀붓다 가득한 불국토 되길”

## 울산 황룡사, 어린이포교 현장

울산 황룡사(주지 황산)가 진행하는 어린이 청소년 포교가 지역포교의 귀감이 되고 있다. 황룡사에는 매주 일요일 70여명의 학생들이 법당을 가득 채운다. 예불과 스님의 법문 그리고 명상까지 거뜬히 해내는 아이들은 법회가 마치고 집으로 바로 가지 않는다. 하루 종일 절에서 청소 봉사하고 설거지 봉사, 그리고 고등부 청소년은 어린 학생들을 돌보며 멘토 역할도 담당한다. 어린이들이 몰려들고 있는 곳, 황룡사의 노하우를 2월 3일 들어보았다.

황룡사는 울산 학산동 도심 한 가운데에 자리하고 있었다. 말 그대로 도심포교 현장이다. 9년 전 문을 열었을 당시 황산 스님은 불교 대학과 함께 어린이 법회를 함께 시작했다. 그 때 당시에는 한명 혹은 두명 정도 법회에 나올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다고 했다.

“어린이 포교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하다 생각했고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에는 한 명조차도 안 나온 적도 있어요. 낙담을 했었죠.”

그래도 스님은 포교 원력의 끈을 놓지 않았다. 절실히 기도하고 마음을 모았다. 그러던 중 2010년 초에 발견 한 것이 ‘국제청소년취포상제’다. 국제청소년



울산 황룡사 청소년프로그램 일환으로 지리산 등반을 한 청소년들이 즐겁게 웃고 있다.

포상제는 전 세계 140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국제적 자기성장 프로그램이다. 주된 프로그램은 신체단련, 자기개발, 봉사와 탐험 활동으로 나뉘며 만 14세~25세 모든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다. 또한 국제공인 자기성장프로그램으로 활동 단계에 따라 동장, 은장, 금장으로 나눠 포상이 주어진다. 황산 스님은 한국청소년진흥센터를 찾아 절차에 따라 등록을 하고 매주 아이들을 위한 활동을 늘려갔다. 그리고 활동에 따른 보고서를 매주 제출하며 자연스럽게 관리하게 됐다.

“멘토링 봉사를 시키며 영어 뮤지컬, 배식 봉사, 축구, 요가, 뮤지컬, 아영 캠프, 여행 등 각 활동에 맞춘 프로그램을 열고 정규적으로 그 활동을 기록해 보고했습니다. 감사도 받아야 하고 까다롭지

만 어린이 포교의 전환점이 되었고 기록제가 된 것입니다.”

매주 진행되는 이 프로그램에 참석하기 위해 법회 출석율은 항상 90%를 넘는다. 그 결과 졸업한 학생들은 스스로 황룡사를 찾아 청년회를 결성하고 봉사를 자처했다. 황룡사 측은 14세 미만인 아이들을 위해서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자기도전포상제’를 제공했으며 평일에는 공부방을 운영해 학업 성취에도 큰 도움을 주고 있다.

황산 스님은 어린이 포교에 대해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주지 스님의 마음과 의지’라고 했다. 어린이 포교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한다면 투자해야 할 곳에 눈을 돌려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전문 교사에 맞는 현실적 채용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하성미 기자**

# 부산 여래사 불교대학 환우나눔 ‘눈길’

부산 여래사불교대학(학장 목종) 재학생 및 졸업생 50여 명은 1월 28일 부산 동구 인창병원을 방문해 환우들에게 직접 준비한 음식을 전달하며 쾌유를 기원했다. 이어 병원 휴게실에서 작은 음악회를 개최했다.

여래사불교대학은 조계종 신도교육기관으로 만해 한용운 스님의 가르침을 전하기 위해 설립됐다. 병원 방문 위로 연은 2010년부터 시작했다. 이와 함께 지역민을 위한 독거 어르신 반찬 배달 봉사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목종 스님은 “소외계층을 위한 일



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일이다.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 등에 나서겠다”며 불자들의 관심과 동참을 당부했다. **하성미 기자**

# 울산 정토사, 어울림합창단 정기연주회

울산 정토사(주지 탁진) 정토·어울림합창단은 1월 31일 울산 중구 문화의전당에서 제2회 합동 정기연주회를 개최했다.

정토사는 불교대학 내 문화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 문화교실에는 민화반, 요가반, 난타반, 노래교실, 요리교실, 다도교실의 수강생으로 이뤄진 정토합창단, 직장인들로 구성된 혼성합창단 정토어울림합창단이 활동하고 있다.

1997년부터 운영된 문화교실은 지역민들의 문화 향유와 불교 포교 및 봉사활동에 적극적 동참하며 실력을 닦아왔



다. 정토사 주지 탁진 스님은 “문화포교는 불법홍포의 첨경”이라며 의미를 부여했다. **하성미 기자**

**예약문의 02)365-7747**  
www.mahayon.com 대표 청정행 두손모음  
오시는 길 : 서울 조계사 앞

**긴급 모객 상품**  
**미안 마 7일**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출발일 : 3월 27일, 상품가 : 209만원

### 부처님의 발자취를 찾아 떠나는 성지순례

#### Myanmar

선물 선망의 나라 미얀마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 6일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짜익티오 7일(3대성지 순례)
- 양곤/바간/만달레이/헤호/뵤띠야 7일
- 양곤/바간/헤호 5일

#### 중국

- [지장도량] 구화산 - [관음도량] 보타산 6일
- [보현도량] 성도/아미산/낙산대불 5일
- [문수도량] 오대산/북경 5일
- [지장도량] 구화산/황산/항주 5일
- [관음도량] 보타산/낙가산/항주 5일
- 서안/용문석굴/소림사 5일
- 산둥 문화탐방 5일, 청도/곡부/태산 6일 - 웨리크루즈
- 태항산/천계산/요산(208M 중원대불) 5일
- 공중도시 면산 & 태항 대협곡 5일

#### 인도/네팔/스리랑카

인도 11일(8대성지순례)  
델리-바라나시-보드가-나란다-리즈기르-바이살라-쿠시나카르-룸비나-스라바스티-산카시야-아그라

인도/네팔 15일  
스리랑카 6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그리야-폴른나루와-일루비하라-캔디

스리랑카 완전일주 8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담볼라-시그리야-폴른나루와-캔디-누와라엘리아-벤토타

스리랑카/인도/네팔 15일  
콜롬보-아누라다푸라-마힌탈레-담볼라-시그리야-폴른나루와-미탈레-캔디-콜롬보-룸비나-바라나시-보드가-리즈기르-파트나-바이살라-쿠시나카르-스라바스티-룸비나-카트만두-나카르코트

#### 티벳/부탄

티벳 6일  
성도-리싸-암드록초-간체-시가체

티벳핵심 하늘열차 8일  
중경-리싸-장체-시가체-리싸-난주역-하늘열차

부탄/네팔 8일  
카투만두-파로-팀푸-왕디포드람-통사-푸나카-팀푸-파로-카투만두-나카르코트

동티벳 9일  
성도-문천-미열강-통달(오명불학원)-백옥(아침스)-간딩-성도

#### 마하연의 특별함

- 직영으로 중간 마진을 뺀 가격책정 (거침없는 상품가격)
- 오랜경험으로 현지 불교행사 진행
- 추가경비 일체 없는 가격책정
- 호텔 - 행사일정 - 식사 (타사 비교 필수)

#### 라오스

라오스 6일  
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라오스/베트남(하롱베이) 8일  
하롱베이-비엔티엔-루앙프라방-방비엥

#### 베트남/캄보디아

하롱베이/씨엠립 6일

#### 대만/홍콩

대만 5일  
대만3대사찰

대만/홍콩 5일  
홍콩(2-대만1)-화련

#### 세계문화 탐방 베스트 상품

- 그리스 문화탐방 9일 · 하와이 문화탐방 6일
- 동유럽 문화탐방 8일 · 서유럽 문화탐방 8일
- 미서부 문화탐방 9일 · 미동부 문화탐방 9일